

KIA 불펜 '마당쇠' 장현식 놓쳤다



KIA '마당쇠'로 활약하면서 통합 우승에 기여한 장현식이 11일 LG와 총액 52억원에 FA 계약을 맺으면서 광주를 떠난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즌 5승 16홀드·'V12' 활약...FA시장서 인기 치솟아 4년 52억원에 LG행...타이거즈, 불펜 구상 비상 걸려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던 '마당쇠' 장현식이 서울로 떠났다. LG 트윈스가 11일 "장현식과 계약기간 4년 총액 52억원 (계약금 16억원, 연봉 3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식이 LG를 선택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계속됐던 KIA와의 동행은 마무리됐다. 2013년 NC 다이노스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장현식은 2020년 문경찬·박정수와 트레이드를 통해 김태진과 KIA로 이적했다. 그리고 장현식은 2021시즌에 3.29의 평균자책점으로 34홀드를 수확하면서 홀드왕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75경기에 나와 75.1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의 마당쇠 역할을 했다. 장현식은 3.94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4패 16홀드를 기록하면서 KIA 정규시즌 우승에 기여했고, 한국시리즈 5경기에 모두 나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V12' 순

간에도 함께했다. KIA는 구단이 생각했던 적정가에 그동안의 공로를 고려, 시장가까지 고려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장현식의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 전체적인 불펜 대란 속 내구성과 빠른 공을 가진 장현식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KIA는 '집토끼'를 놓쳤다. 장현식이 떠나면서 KIA는 '필승조' 구상을 새로 해야 한다. 일단 장현식에 집중됐던 시선이 임기영에게 쏠릴 전망이다. 이번 시즌이 끝난 뒤 KIA에서는 장현식과 함께 임기영, 서건창이 FA를 선언했다. 올 시즌 임기영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37경기에 나와 45.2이닝을 소화하면서 6.31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2패 2홀드를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임기영의 이름은 빠져있다.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2017시즌 우승 주역인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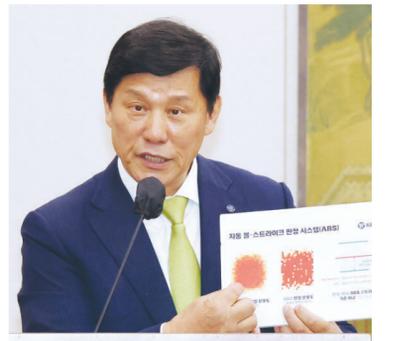
기영은 전천후 투수로 선발과 불펜에서 활약을 해왔다. 임기영과 서건창이라는 집토끼가 남아있고, 아직 시장은 열려있다. 장현식에 앞서 유규민(KT), 최정(SSG), 심우준·엄상백(이상 한화), 허경민(KT), 김원중·구승민(이상 롯데)의 FA 계약이 이뤄졌다.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 중 A등급은 LG 최원태가 유일하고, KIA 임기영, 삼성 류지혁, SSG 노경은, 한화 하주석, NC 이용찬(이상 B등급), KIA 서건창, 삼성 김현근, 두산 김강률, NC 임정호·김성욱, 키움 문성현(이상 C등급)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5급 매물'을 중심으로 FA 시장에서 조용한 큰손으로 통했던 KIA의 눈길을 끄는 특급 선수는 없다. 하지만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전체적으로 FA 시장을 살필 방침이다. 장현식의 이탈로 플랜B를 가동하게 된 KIA에는 외국인 선수 구성이라는 중요한 숙제도 남아있다. KIA의 스토브리그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야구 숙원' 프로야구 산업화 시대 열었다

허규연 KBO 총재 '일구대상'

프로야구 산업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허규연(사진) KBO 총재가 일구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가 11일 "2024 뉴트리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KBO 총재를 일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그는 한국 야구의 숙원인 프로야구의 산업화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허 총재는 경남고와 고려대 출신으로 한일은행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했고, 1986년 정보 핀토스 감독에 오르며 지도자 경험도 쌓았다. 허 총재는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MBC 해설위원을 맡아 2021년까지 마이크를 잡았고, 2022년 3월에는 '야구인 최초의 KBO 총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해설위원 시절 야구용어 정리와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총재로 선임된 이후에도 KBO의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와 수비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또 타빙과 3년간 1350억 원(연간 450억 원)이라는 한국스포츠 사상 최대 금액에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이는 구단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숏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프로야구 흥행의 새 바람을 만들었다. 여러 제도 도입과 변화 속에 올 시즌 KBO는 1982년 출범 이후 처음 '1000만 관중'을 기록하는 등 프로야구 산업화 시대를 열었다. 허 총재는 '남해안 벨트'를 통한 지역·야구 동반 성장도 노리고 있다. 기존 경상권에 해남과 완도를 중심으로 전라권의 인프라를 조성, 전지훈련·대회 등 야구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광수 일구회 회장은 "허 총재는 현장을 파악하고 근본 시스템에 칼을 대는 결단력을 나타냈다"며 "한국야구를 이끄는 KBO 수장이 해야 하는 역할

을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구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OB들이 뽑은 최고 타자와 최고 투수 등 9개 부분의 수상자는 11월 중순경에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구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OB들이 뽑은 최고 타자와 최고 투수 등 9개 부분의 수상자는 11월 중순경에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PO 진출 이끌 것"



광주 검객들 '전국 호령'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시·도대항검도' 금메달 등 6개 메달

광주 검도선수단이 '제11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검도대회'에서 메달 6개를 목에 걸며 활약했다. (사진) 시 선수단은 지난 9·10일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3관 2선승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초등부·고학년부, 중·고등부, 대학동아리부, 여자부, 남자청·중·장년부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눠 개인전이 열렸다. 단체전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동아리부, 여자부, 남자청·중·장년부 총 7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개인전에서는 최진수(여중검도관)가 남자청년부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대검도관의 김우석은 남자장년부 개인전 준우승, 김정미와 배화희는 여자부 개

인전 공동 3위에 올랐다. 초등부 단체전에서는 옥하운·송승민(이상 오지검도관), 허운도(임동력검도관), 이영광(고실검도관), 권순현(진성검도관)이 우승을 합작했다. 이어 남자장년부 단체전에 출전한 정선태·허수욱(이상 임동력검도관), 김승호·유행탁(이상 고실검도관), 김우석·장영진(이상 국대검도관)은 3위를 기록했다. 남태운 광주시검도회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구슬땀 흘린 선수단과 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선수단도 초등고학년부 선수연(별교검도관)이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총 6개의 메달(은 1·동 5)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새로운 주장 서아루 각오 밝혀 내달 3일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동료 정현희·김지현 등과 출전

H리그 여자부 경기 내년 1월 시작

여자 핸드볼 광주도시공사의 새로운 '주장' 레프트형 서아루(사진)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각오를 전했다. 서아루는 "주장이라는 자리가 무겁긴 하지만, 다들 잘 따라줘서 팀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까웠던 언니들이 간간 건 아쉽지만, 우리 팀은 늘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같이 잘 해 나갈 걸 알아서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 신한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는 지난 10일 서울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부 두산과 하남시청의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사인회에서 서아루는 도시공사 선수단을 대표해 팬들을 만나 인사도 나눴다. 서아루는 "사실 맨날 보던 얼굴들이라 너무 친숙했다. 경기장 앞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매번 고맙다"며 "30분 동안 팬들과 인사하고 소통했는데, 다들 '주장 되니까 어때요?'라고 똑같이 물

어보셨다. 솔직하게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H리그 경기는 남자부 6개, 여자부 8개 팀이 2025년 4월까지 전국 9개 도시를 돌며 진행된다. 여자부 경기는 오는 12월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일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도시공사에서는 서아루를 비롯해 라이트백 정현희, 그리고 레프트백 김지현이 이번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들은 3주간의 대표팀 훈련을 위해 11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 입촌했다. 도시공사 핸드볼 사령탑 오세일 감독은 "서아루 선수는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경험 부분에서 많이 성장한 상태고, 후배들을 잘 이끄는 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선수권대회를 통해서 큰 대회를 경험하며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팀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즌 도시공사는 2년 만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2021-2022-2023년 3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도시공사는 주전선수 부상 등으로 지난 2023-2024시즌을 정규리그 7위로 마무리했다. 서아루는 "신인 선수들과는 모두 초면이라 아직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못 봤는데,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빠르게 합을 맞춰보려 한다. 서로의 장점과 보완해 줄 점을 찾아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겠다"며 "새로운 선수들과 잘 어울려서 편안한 팀으로 만들고 싶다. 다 같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